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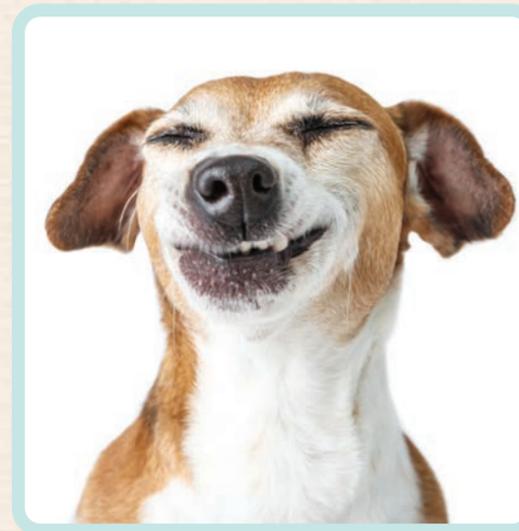


상상 속으로

◆ 다른 인물이 되어 상상하는 글을 써 봅시다.



사진 속의 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봅시다.



나는 개다

나는 엄마 젖을 떼고 처음 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 이곳으로 보내졌다.

그렇게 동동이네 가족이 되었다.

나를 낳아 준 우리 엄마를 이야기하자면 이 구역의 왕엄마시다. 해마다 새끼를 엄청나게 낳은 것이다.

어쩌면 동네에서 마주치는 개들이 거의 다 내 형제자매일지도 모른다는 소리다.

그래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열심히 대답해 준다. 기억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가족이니까.

한밤중 하울링[●] 하면 아버지[●]도 빠지지 않는다. 하지만 목소리가…… 좀…… 그렇다. 아버지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.



아침이다.

아버지가 나간다.

동동이도 나간다.

어, 할머니도?

그럼, 나도! 나도! 나도! 나도!

산책이다.

앗! 저건…… 동동이다!

유치원 차에서 내려 날 보더니 달려온다. 쿵! 넘어져 버렸다.

인간의 아이는 참으로 나약하다. 어엿한 다섯 살인데도 아직 달리기가 서툴다니. 하는 수 없다. 내가 지켜 주는 수밖에.

그나저나……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, 이 동동이란 녀석 참으로 곤란하다. 떼쟁이에, 울보에, 아직도 똥오줌을 못 가려서 가끔 잠자리에 실수도 한다. 그래도 어쩔 수 없다. 내가 끝까지 보살피 줘야지.

- 하울링: 울부짖는
- 아버지: 아버지의 사투리



동동이 잠들었다. 좋은 냄새가 난다. 나도…… 즐린다…….

아이고, 배야…… 아…… 아아…… 꿈!

“구슬이! 이 녀석!”

오늘 밤은 왠지 큰 소리로 하울링하면 안 될 것 같다.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로 혼자 울었다. 그런데…… 동동이 들었다나 보다.

1 「나는 개다」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.

1 '나'의 가족은 누구누구인가요?

2 '내'가 동동이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?

2 다음의 뜻을 가진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봅시다.

보기 나약하다 서툴다 빠지다

- 생각이 굳세지 못하다.
- 몸이 가냘프고 약하다.

3 동동이 되어 구슬이와 있었던 일을 일기로 써 봅시다.

20 년 월 일 요일 날씨:

제목:



4 내가 우리 반 선생님이 되었다는 상상을 해 보고 글을 써 봅시다.

보기

나는 선생님이다

나는 소망 초등학교 2학년 4반 선생님이다.

기분 좋게 출근하여 교실 문을 열었다. 오늘도 아이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다. 조용히 하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아이들은 끄떡없다.

1교시가 시작되었다. 역시 우리 반은 발표를 잘한다. 자세도 바르다.

나는 선생님이다

나는 () 초등학교 2학년 ()반 선생님이다.

5 내가 '의자'가 되었다고 상상하고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 봅시다.

보기

보기



배움 다지기

- 다른 동물이나 물건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았나요?
- 다른 인물이 되어 상상하는 글을 써 보았나요?

